

선한목자예수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2014 년 5 월 11 일)

바로 가족 창립 100 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빠스또렐레는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 안에서, 오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돌봄에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필요를 위해 선한목자예수님께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그들의 “예”를 드리는 관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안에서 그 기억을 청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의 일치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매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서로를 도웁시다.

마르타 피노텔리 수녀
총원장과 빠스또렐레 수녀들 드림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말씀

영혼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성소가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이미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이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 안에서 (기도하기를). 마침내 잘 살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의 일 안에 있는가!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넓은 마음, 즉,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사목적 정신이다. 이것이 사목적 정신이다! 선한목자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다. 선한목자이다. 그러므로 사목적 정신을 청하라. 사목적 정신을 청하라. 그리고 항상 그분께 청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기 안에서 청하라.

(AAP 1967, 348.396.397)